

형제 갈등 중재 4단계

누가 이겼는지보다 안전하게 멈추고 다시 해결하는 경험을 만듭니다.

1단계

멈추고 안전 확보

“멈춰. 몸은 다치게 하지 않아.”

때리기·밀치기·던지기가 있으면 아이와 물건을 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2단계

각자의 이야기 듣기

“한 명씩 말할 거야. 먼저 네가 본 일을 말해 줘.”

말을 끊지 않고 들은 뒤 사실·감정·바람을 짧게 되짚습니다. 두 설명이 달라도 바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3단계

문제를 비난 없이 바꾸기

“두 사람 모두 지금 같은 자동차를 쓰고 싶구나.”

‘욕심쟁이’, ‘울보’ 같은 딱지를 빼고 공동의 문제로 바꿉니다. 형·동생 비교와 나이로 양보시키기는 금지합니다.

4단계

해결책 고르고 시험하기

“어떻게 하면 둘 다 괜찮을까?”

번갈아 쓰기·함께 쓰기·다른 재료 더하기 중 하나를 골라 짧게 해 보고, 괜찮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가정판 · 그대로 말해 보세요

짧은 문장을 반복하고, 각 아이에게 같은 말할 시간을 줍니다.

멈춤

안전부터

“손은 멈출게. 화난 건 괜찮지만 사람을 때리지는 않아.”
“이 장난감은 잠깐 여기 둘게. 두 사람 몸이 편해지면 이야기하자.”

듣기

한 명씩 같은 시간

“지금은 네 차례야. 네가 본 일을 말해 줘.”
“차를 먼저 쓰고 있었는데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이제 동생 차례야. 형은 잠깐 들어 보자.”

바꾸기

비난을 공동 문제로

“형이 욕심쟁이” → “둘 다 같은 차를 쓰고 싶어.”
“동생은 맨날 울어” → “갑자기 빼앗겼다고 느껴 속상했어.”
“너는 형이니까 참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결

사과보다 회복 행동

“번갈아 쓸까, 같이 길을 만들까, 다른 차를 더 가져올까?”
“준비되면 미안하다고 말해도 돼. 먼저 무너진 탑을 같이 세우거나 새 종이를 가져다줄 수도 있어.”

교사용 · 중재 스크립트

공개 심문을 피하고 관찰한 사실, 각 아이의 관점, 환경 지원을 연결합니다.

안전

행동의 한계만 분명히

“멈춰. 밀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갈게.”
큰 소리로 이름을 지적하거나 반 전체 앞에서 누가 먼저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한 장면씩 확인

“두 사람이 같은 샵을 잡고 있었고, 한 친구가 뒤로 밀렸어.”
“각자 본 일이 다를 수 있어. 한 사람씩 말해 보자.”
교사가 본 사실과 아이의 해석을 섞지 않습니다.

배움

말과 관점 연결

“둘 다 계속 파고 싶었구나. 기다리기 어려웠고, 갑자기 손이 와서 놀랐구나.”
감정은 인정하되 해치는 행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환경까지 바꾸기

“차레 표시에 이름을 놓을까, 샵을 하나 더 가져올까, 함께 큰 구덩이를 만들까?”
반복 갈등은 재료 수·동선·기다리는 자리도 살핍니다. 특정 아이만 계속 다치면 보호 절차에 따라 기록·공유합니다.

중재 뒤 · 다시 연결하기

즉시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회복과 다음 약속을 고릅니다.

회복

아이가 고를 수 있는 행동

-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기
- 새 종이·재료를 가져다주기
- 다친 곳을 살펴볼지 물어보기
- 잠깐 떨어져 쉬고, 준비되면 사과하기
- 내일 같은 상황에서 쓸 말을 함께 연습하기

금지

비교와 낙인 대신 관찰

“동생은 잘 기다리는데 너는 왜 못해?” 대신
→ “아까는 손이 먼저 나갔고, 지금은 ‘내 차례야’라고 말했네.”

“넌 원래 욕심쟁이야.” 대신
→ “지금 더 쓰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다음 사람 차례도 지킬 방법을 찾자.”

연령

기대 수준을 조절해요

- 1~2세 · 긴 대화보다 행동을 막고 같은 물건을 더 준비해요.
3~4세 · 감정과 바람을 한 문장으로 대신 말해 줘요.
5~7세 · 해결책의 결과를 비교하고 하나를 시험하게 해요.

반복적인 폭력이나 두려움이 이어지면 중재만 반복하지 말고 안전 계획과 전문 지원을 마련합니다.

평온할 때 정할 가족·학급 문장

몸은 안전하게 · 말은 한 명씩 · 해결책은 함께